

삼성전자, UHD TV도 SONY 제쳤다!

4/4분기 유럽시장 점유율 40%로 10%포인트 높아 ... 중국 공략도 강화

8년 연속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출발이 늦었던 UHD(Ultra High Definition) TV 시장에서도 일본 SONY의 아성을 무너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엔 UHD TV 시장점유율이 2013년 일시적으로 SONY와 무려 4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으나 4/4분기에는 3%포인트까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리미엄제품 시장인 유럽에서는 4/4분기에 SONY를 10%포인트 차이로 밀어내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2013년 4/4분기 세계 UHD TV 시장점유율은 SONY가 18.2%로 1위를 차지했지만 삼성전자가 14.9%로 역전 가시권인 3.3%포인트 차이까지 추격했다.

세계 UHD TV 시장점유율(2013)

(단위: %)

회사명	Q1	Q2	Q3	Q4
SONY	15.4	42.4	23.2	18.2
삼성전자	4.8	3.8	11.0	14.9
스카이워스	4.9	10.8	17.7	13.9
창홍	0.1	9.9	7.6	11.4
하이센스	33.8	6.1	9.4	10.5
TCL	-	9.4	11.2	8.5
콩카	3.2	2.8	6.5	8.4
LG전자	9.8	5.9	6.9	6.9
샤프	1.2	2.4	1.8	2.9
파나소닉	-	-	0.4	1.7

자료) 디스플레이서치

중국 메이저인 스카이워스, 창홍, 하이센스, TCL, 콩카가 뒤를 이었고 LG전자는 8위, 일본 샤프(Sharp)와 파나소닉(Panasonic)이 10위권을 차지했다.

삼성은 2006년부터 평판 TV 시장점유율 1위를 지켜왔지만 UHD TV는 2013년 하반기에야 프리미엄제품을 유럽에 본격 출시할 만큼 시장 진입이 늦어졌다.

하지만, 2013년 3/4분기부터 55인치 및 65인치 대형 UHD TV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면서 대반전에

성공했다.

3/4분기에는 점유율이 11.0%로 수직상승해 SONY와의 격차를 12%포인트대로 좁혔고 4/4분기에는 2, 3위를 달리던 스카이워스와 TCL을 제쳤다.

특히, 삼성전자는 2013년 4/4분기 유럽 UHD TV 시장에서 40.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해 SONY의 점유율을 거의 10%포인트 웃돌았으며 2013년 연간 점유율도 36.2%로 35.5%인 SONY를 앞섰다.

박광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중국도 TV 시장이 급속히 UHD TV로 전환됨에 따라 진정한 UHD 화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UHD제품군을 대거 확대해 중국시장에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2/25>